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 동 료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언론학

행복한 왕자가 불행하게 울고 있다

은 곳에 자리잡게 되자 세상의 온갖 슬픈 일을 지켜보게 된다.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해 자신의 몸을 치장한 수많은 보석을 떼 내어 그들에게 나눠주게 한다.

왕자를 장식한 모든 보석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제비는 남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남과 동시에 일어 죽는다.

봄이 오자 마을 사람들은 한때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멋진 동상이 보석이 사라진 흥취한 무심당이로 변해 있자, 창피하다며 부쉬버렸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느님이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 즉, 제비와 왕자의 심장을 가져오게 해 하늘나라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게 했다는 줄거리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1854-1900)가 쓴 동화다. 19세기 말 산업혁명과 함께 불어 닥친 당시 영국사회의 이기주의, 물질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타인에 대한 사랑의 존귀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대를 주름잡던 유태주의자이지만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던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던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의 다른 저명 작가인 에이츠나 버나드 쇼 등과 마찬가지로 경계인의 삶을 살았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이래 빼어난 작품으로 일약 유럽의 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30대 중반 16세 연하의 옥스퍼드 대학생 알프레드 더글러스 경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요즈음 말로 성 소수자, 즉 동성애다. 당시 지배세력에 의해 외설로 단죄되어 2년 형에 처해지는 등 불행한 삶을 이어가다 1900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속물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나머지 극도로 버림받은 삶이었다. 하지만 사후 100여 년 뒤인 1998년 영국 정부가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의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비로소 명성을 인정받았다.

유치찬란하게도 나는 동화 '행복한 왕자'를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런던에 갈 때면 반드시 와일드 동상을 찾는다. 이 불행했던 천재의 행복론을 읽으며 나는 우리 사회의 사라져 가는 이타주의(altruism)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 개념을 창안한 석학 자

크 아탈리는 “초연결망 사회에서는 이타주의가 미래의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치 혼자만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곧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미래사회에서는 타인의 성공이 곧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타인의 불행이 나에게도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나는 '행복한 왕자'를 종강의 변으로 수강생들에게 들려줄 때마다 한 세기 전 와일드가 우리에게 던져 준 타인을 위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

“가없는 제비는 점점 추워졌지만, 왕자의 겹을 떠나지 않았다. 뽕집 문 앞에 떨어진 진 스루가뽕을 쪼아 먹고 양 날개를 파다이며 몸을 녹이려고 했다. 하지만 제비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 남은 힘을 다해 마지막으로 왕자의 어깨 위로 날아 올랐다. 제비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산타클로스를 철석같이 믿다가, 믿지 않다가, 스스로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다. 남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왕자와 제비가 몹시도 그리운 한해의 끝이다. 아유 2014!

社說

광주에도 수돗물 못마시는 주민들 많다니

전남지역에 이어 광주에도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한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으면서 수돗물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연마을은 총 52곳, 4736세대에 이른다. 행정구역별로는 북구 9개 마을(무등산 고지대 8개 마을 포함)과 광산구 43개 마을이다. 일반 시민에선 언제든 공급되는 수돗물이 이들 마을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이들 주민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지하수 오염 걱정에 매일 끓여서 마셔야 하고, 때론 부딪아 큰 생수를 사기도 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한 파가 계속되는 요즘에는 밤 사이 지하수 수도꼭지가 얼어붙어 이를 녹이느라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주민들이 매일 ‘식수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곳도 많고 일부 마을에선 수질 검사 결

과, 불량 판정이 나와 끓여 마셔도 걱정이 앞선다. 같은 광역시에 살면서도 ‘변방’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상수도 보급은 지지부진하다. 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마을만 시설 계획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체 52개 마을 가운데 내년엔 4개 마을, 2016년 8개 마을, 2017년 4개 마을 등 16개 마을(839세대)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구 화암마을 등 8개 마을은 무등산 고지대인 탓에 보급 여부가 불투명하며, 나머지 28개 마을에 대해서도 이달말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돗물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에서 예산 부족 탓만 해서 안 된다. 물론 한꺼번에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예산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불량 판정이 나올 경우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영산강 수질 악화, 개선 대책 서둘러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대로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영산강 수질이 더 악화 된 것을 드러냈다. 승촌보와 죽산보를 설치하고 바닥을 준설하는 바람에 강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조류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위원회는 23일 “한강, 낙동강(상류 제외), 금강 등에서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조류농도가 대체로 감소했으나 영산강은 조류의 원인인 식물 플랑크톤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 건설과 준설 때문에 영산강 수질이 나빠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수치는 내놓지 않아 오염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위치가 기준없이 선정됐고 16개 보의 홍수 조절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는 등 생태계 복원도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성과가 있었다지만 현재 22조

원을 쏟아붓고 당초 4대강 사업이 목표인 한 수질개선, 홍수예방, 생태계 개선 등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정부가 개선한 셈이다. 4대강 반대 입장의 전문가들이 빠져 ‘반쪽’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번 조사위에서도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했고 그것도 제대로 조사할 못했다고 고백했다. 야당은 핵심 조사 사항이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다시 진단해야 한다. 국정조사나 찬반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기에 당.정부·여당과 찬성 측이 자신 있다면 못나설 이유도 없다.

더욱 걱정스런 부분은 유독 영산강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고 자정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정후라면 강은 물론 주변 생태계 오염이 견딜 수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영산강이라도 먼저 정밀조사하고 수질 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생리기간 중 목소리 변화



김 형 태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원장

가 갈라져 말하기 힘들어지거나 떨림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목이 쉽게 피로해져 교사, 상담직, 소풍호스트, 성우, 뮤지컬 배우 등의 음성 전문가용 직업군은 생리기간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성의 몸은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여성호르몬 중의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이 성대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성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생리시작 7일 전 경부터 목소리가 갈라지고 쉬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과다해지는 시기에 자궁이 부으면서 성대도 함께 붓기 때문이다. 음주, 목소리 오남용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 외에 여성의 호르몬 주기 등의 신체적인 요인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성대부종은 선 목소리와 저음, 목이 잠기고 이물감을 동반하는 등의 증상이 특징이다.

여성의 호르몬 주기는 생리가 시작되는 기간을 기점으로 생리가 끝나고 새로운 배란기에 들어가는 기간, 생리 전 일주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들의 컨디션이 가장 좋지 않은 시기가 생리 시작 7일 전이다. 이때는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

테론의 분비가 늘어나면서 불안정해지는 시기다. 배란 이후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2개의 여성호르몬 분비량이 부딪히면서 정서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개인에 따라서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심하게 변하면서 뇌의 물질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분비가 저하되면서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고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증가한다. 프로게스테론은 신체에 수분을 축적하는 성질이 있어 자궁과 성대에 부종을 일으키게 된다. 유럽에서는 이 기간에 오페라 여배우들에게 휴가를 4일씩 보장할 정도로 호르몬 주기에 따른 목소리 관리를 중요시 여긴다.

생리 시작 14일 전인 배란기 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정점을 찍게 되므로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일을 하면 효과적이다. 열정과 창의력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성대의 붓기도 빠져 목소리가 맑아지고 안정적인 톤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적인 발표 등을 할 때 최상의 목소리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생리주기를 한번쯤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궁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가 성대에도 존재하므로 생리 일주일 전 프로게스테론이 증가해 목소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성대의 부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목소리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목소리 관리를 잘못하거나 흡연 등으로 인한 성대부종이 심하거나 라인끼씨부종과 같은 병적인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약물치방 외에 부종이 생기는 성대점막을 가라앉히고 성대조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도록 돕는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

여성 호르몬에 따른 일시적인 목소리 변화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술을 많이 마시거나 흡연, 노래방 등에서 과하게 목을 쓰는 행위를 하면 평소보다 성대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다. 부종의 흡수를 빠르게 도와 정상의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마늘을 줄이고 부종에 효과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성대부종에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호박, 대추차, 검은콩, 배 등이 있다.

기 고



조 대 용  
전남도 방재과장

혜성 탐사와 겨울철 자연재해 예방

지금 인류는, 우주선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비행하고 인류 최초로 혜성에 착륙해 지구 생명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를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 탄생의 비밀을 풀기 위한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것처럼 현대 사회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인류는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재난 또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서 인류는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재해 앞에 무한히 낙약할지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 발달로 인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빈발하고 그 피해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미국 북동부지방은 일 년 동안 내릴 눈과 맞먹는 눈 폭탄이 쏟아지는 등 38년만의 강추위와 폭설에 강타당해 사망자가 13명이나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2월 첫날부터 눈이 내렸고 호남지역에도 폭설주의보와 함께

눈이 내려 고속도로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본격적으로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은 지구촌 곳곳에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남도에서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15일 까지를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단계별 상황관리 근무체계를 강화하여 24시간 근무체제가 돌입했다.

전남도 상황실은 총괄조정관을 중심으로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지원, 재난현장정비, 시설 응급복구, 의료·방역 등 13개 반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붕괴 우려 노후 시설물에 대해 공무원과 마을 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폭설 시 고압이 예상되는 25개 마을

638가구는 재난관리관을 임명해 대비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설 전진기지 10개소를 확보하고 779대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 제설차재 및 인력 2284명이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립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각자 개인이 대비한 것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에 활동 장구를 갖추고 운행하는 것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어렸을 적 눈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눈 치쿠가 마당이며 골목길까지 눈을 쓸었던 추억이 있다. 지금은 주거문화와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눈 치쿠기에 너무 많이 인식해졌지만, 성숙한 주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쿠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한다.

견인차량 위험한 질주 그만... 교통법규 지켜야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도로 위를 무섭게 질주하는 견인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급격한 차선변경이나 신호위반, 심지어는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까지, 이런

위험천만한 광경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교통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견인차량의 도움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수리하게 된다. 사고

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사고의 위험과 사고차량 방치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이 견인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견인차량들의 위험천만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견인차량이 신속히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것도 좋지만, 신속히 도착한다는 것이 교통법규까지 무시해가며 무리하게 주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견인차량 또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강종구·광주서부경찰서 기동순찰대

**無 等 鼓**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趙高)는 황제의 칙서를 위조해 어린 호해(胡亥)를 황제로 옹립했다. 조고는 원로 중신들을 처치하고 최고 관직인 승상에 올라 조정을 한 손에 틀어쥐었다.

그가 어느 날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엔 갖다 놓고 말이라고 우겼다. 조고를 두려워한 중신들은 사슴을 사슴이라 말하지 못했다. 더러 사실을 말하는 신하가 있었지만 나중에 모두 죽임을 당했다. 사슴(鹿)을 가리켜(指) 말(馬)이라 했다(爲)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故事)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시 떠오르는 일본어 단어가 있다. ‘빠가야로’(馬鹿野郎, ばかやろう)다. 괄호 안의 한자어 말 ‘마’(馬)자와 사슴 ‘록’(鹿)자가 보이기 때문이다. 말과 사슴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 녀석’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빠가’는 ‘바카’(ばか, 馬鹿)의 변 몸임이고 ‘야로’(やろう, 野郎)는 녀석·자식·촌놈 등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바카’(馬鹿)가 정말 ‘지록위마’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바카’의 어원으로 산스크리트어(梵語)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일본의 국어대사전인 ‘고지엔’(廣辭苑) 등을 볼 때 ‘바카’의 한자는 ‘막가’(莫迦)로 쓰기도 하는데 따라서 ‘마록’(馬鹿)은 단지 음을 빌려 쓴 한자라는 주장도 있다. 다만 그 의미와 소리가 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 셈이다. 마치 중국에서 코카콜라를 ‘가구가락’(可口可樂, 커커우커러: 입에다 맛고 즐김만하다는 뜻), 펌시콜라를 ‘백사가락’(百事可樂, 바이스커러: 온갖 일이 다 즐길 만하다는 뜻)이라 하는 것처럼, 교수신문이 올해의 시자성어로 ‘지록위마’를 꼽았다. 수많은 사슴들이 말로 바뀐 한 해였기 때문이다. 온갖 거짓이 진실인 양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흑백이 뒤바뀌고 진실은 가려졌다.

“내리라고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고 안 했다.” “담뱃값을 올리기로 했지만 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다.”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사슴 같은데 말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보인가. 에이, 이럴 때 튀어나오는 욕이 있다. “민나 도로보데스!”(みんなどうぶです: 모두 도둑놈들이야!)

/이홍재 논설교론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